

대중매체 노출이 신체상(身體像) 지각과 상태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장희순* · 김태련**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진 신체상(body image)을 지각적, 태도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대중매체에 서 전달되는 신체에 관한 메시지가 이를 수용하는 개인의 신체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공중파와 위 성방송, 극영화를 편집하여 제작한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게 한 후 이미숙(2000)과 헤저튼(Heatherton 등, 199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노출된 대중매체의 자극에 따라 신체상의 지각과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날씬한 여성이 주로 등장하는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은 신체상 지각의 차이는 커지고 신체존중감은 저하되었으며, 뚱뚱하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 건의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대중매체의 노출로 인한 영향의 정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신체상, body image, 신체이미지, 신체 왜곡, 대중매체

*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 이화여자대학교

I. 서 론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서양의 문화와 이념, 가치 등이 널리 침투, 보편화되면서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도 이전의 미인상과는 사뭇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 미인의 전형이라 불렸던 달덩이 같은 얼굴에 통통하고 자그마한 체구의 동양적 미인 대신, 긴 하체와 날씬한 몸매,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춘 서구적인 외모의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치의 전파는 산업화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더욱 확산, 보편화되었고, 그에 따라 현대의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좀더 날씬하고 좀더 마른 몸매를 갖도록 하는 압력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비롯한 각종 체중조절의 노력을 하고 있다(조선진 & 김초강, 1997; Striegel-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서 만 11세에서 17세사이의 초, 중, 고 학생 3,782명을 대상으로 외모와 건강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상적인 여성의 체형으로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여학생들에게서 61.4%, 남학생들에게서 39.2%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여학생에게서 46.4%, 남학생에서 31.9%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 하는 경향은 여학생 가운데 57.9%, 남학생에게서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2).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선호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하는 현상이 심각하며, 이러한 현상이 특히 여학생들에게 현저함을 알 수 있다.

개인이 갖는 이러한 신체상은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Thompson & Smolak, 2001). 그 가운데 최근 들어 사회, 문화적 요인 중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수용 대상과 파급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향력 또한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중매체가 신체상에 미치는 효과에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데,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대중매체에 노출로 인한 신체상 혼란이 연령에 따른 발달적인 변화를 갖고 있으며 또한 초기 청소년기가 가장 민감한 시기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빠른 경제성장과 서구화, 각종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매체의 수용과 파급이 주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연령층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대중매체가 신체상의 지각과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상과 신체상 혼란

신체상(身體像, body image)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내적인 심상과 그 상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의 총합을 의미한다(Power et al., 1987). 그러나 이러한 신체상을 설명하는 모델에 포함되는 차원들은 학자마다 다양한데, 연구들 간의 방법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교적 두 개의 독립적인 범주는 지각적인 신체상, 즉 ‘신체 지각(body percept)’과 태도적인 신체상 즉, ‘신체 개념(body concept)’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각적인 신체상은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가를 말하며, 태도적인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 평가, 행위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신체상은 섭식장애, 자아존중감, 자아 개념 및 의복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Keeton, Cash, & Brown, 1990).

신체상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신체상 혼란(body image disturbance)’, ‘신체상 왜곡(body image distortion)’, ‘신체상 불만족(body image dissatisfaction)’, ‘신체상 문제(body image problem)’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

고 연구 주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체상 왜곡’이란 용어는 신체상의 지각적 정확성의 측면에서 자신의 실제 신체 크기에 대한 지각의 과대, 혹은 과소 현상을 다룬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다(김수영 & 원장원, 1996; Thompson et al., 2001). 즉, 자신의 신체를 지각함에 있어 실제와 동일하게 지각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인 인식의 측면에서 신체상 왜곡을 정의하고자 하며, 신체상 실루엣의 측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현재 자신의 체형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여 되고 싶어 하는 체형간의 차이를 ‘신체상 지각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신체상 불만족’이란 용어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신체상 실루엣(body silhouettes) 그림 가운데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의 차이로 정의되기도 한다(Turner et al., 1997).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는 ‘신체상 불만족’을 이러한 지각의 차이로 정의하기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신미영, 1997; 한미정; 2000, 2002; 박은아, 2000; Dunkley, Wertheim & Paxson, 2001; Harrison & Cantor, 1997; Thompson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신체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태도 가운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신체 존중감의 차원에서 ‘신체상 불만족’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원을 통칭해서 ‘신체상 혼란’이라 하였다.

섭식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신체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여 지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Killen et al., 1994; Koenig & Wassermann, 1995; Leon et al., 1993). 이러한 신체상의 혼란은 섭식장애 환자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정상 여성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도 다수 있다. 보통의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거울에 비춰볼 때 자신을 뚱뚱하게 보고 특히, 날씬한 몸매가 좀더 이상적인 체형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 크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Birtchnell, Dolan, & Lacey, 1987).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실제 지각과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신체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안소연, 1994; 이미숙, 2000), 이 연구들에서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상과 이상적인 신

체상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잘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듀크-던컨 등(Duke-Duncon et al., 1985)은 12-17세의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소녀들은 성숙함에 따라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하고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년들은 신체적인 발달에 따라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중매체와 신체상 혼란

다양한 요인들이 신체상의 혼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은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이상적 기준이나 또래와 자신과의 비교,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비현실적인 매력적 이미지를 내재화하는 것, 외모에 대한 타인의 비웃음, 친구들이나 부모의 체중 감량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성적인 학대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혹은 이른 사춘기의 시작 등이 있다(Muir, Wertheim, & Paxton, 1999; Stice & Agras, 1998; Thompson & Heinberg, 1999; Vander Wal & Thelen, 2001).

이 가운데 최근 들어 대중매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TV나 신문 잡지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메시지는 이에 노출되는 거의 모든 수용자에게 여과 없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은 물론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문화를 형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중매체와 신체상간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매스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영, 1997; 김재숙 & 이미숙, 2001; Hamilton & Waller, 1993; Irving, 1990; Stice & Shaw, 1994). 터너 등(Turner et al., 1997)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른 여성이 주로 등장하는 보그 (Vogue)패션 잡지를 본 집단과 시사 잡지인 타임(Time)지를 13분 동안 본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상 만족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패션잡지를 본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슨과 칸토(Harrison & Cantor, 1997)는 날씬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TV 쇼프로그램을 본 집단이 정상 체중

혹은 과체중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TV 쇼프로그램을 본 집단보다 섭식장애의 증상과 관련된 지표를 더욱 많이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들은 TV를 시청하는 것과 잡지를 읽는 것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영향이 단지 신체상에 국한된다기보다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같은 좀더 일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됨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 연구 가운데, 한미정(200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내용의 비디오를 보게 한 집단과 동물 등이 나오는 비디오를 10분간 시청하게 한 집단의 신체 불만족감과 다이어트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른 몸매를 강조한 내용의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 불만족감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것으로, 단지 10여분 정도의 노출에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난 것은 그만큼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Levine & Smolak, 1996, 1998). 특히 청소년기는 가장 취약한 시기로, 이가영(1997)은 TV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제시되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TV 시청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시청하는 TV 프로는 드라마와 쇼, 오락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김태은, 1999), 이러한 프로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날씬한 몸매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 대부분이며, 청소년기 소녀들은 여성의 매력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마른 것과 매력을 동의어로 생각하기 때문에(Resenbaum, 1979) 왜곡된 미의 기준을 형성하기가 쉽다. 신체상 혼란에 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meta 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도 19세 이상의 대학생보다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날씬한 자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Groesz, Levine & Murnen, 2002).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신체상의 미치는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미 외국에서는 예방적 개입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Killen et al., 1993; Mcvey & Davis, 2002).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집단 구성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 참여자는 실험자가 편의 표집 하여 학급별로 실험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5, 6학년 6개 반, 3개 고등학교 1, 2학년 7개 반, 그리고 E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 당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남학생이 동시에 참여하였으나 자료 분석 시 제외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실험 참여자와 신체질량지수(BMI)*에서 25점 이상을 얻은 비만인 사람의 자료는 제외하고 모두 36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각 조건별로 피험자의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참가자의 구성

비디오조건	날씬	뚱뚱	통제	합계	
초	과소	23	21	22	66
	정상	12	13	12	37
	합계	35	34	34	103
고	과소	13	23	13	49
	정상	28	21	12	61
	합계	41	44	25	110
대	과소	21	12	9	42
	정상	46	46	20	112
	합계	67	58	29	154
합계	과소	57	56	44	157
	정상	86	80	44	210
	합계	143	136	88	367

* 신체질량지수(BMI: kg/m^2)란 신장과 체중과의 비례정도로, 그 값이 19점 이하일 때 과소체중, 20점 이상 24점까지를 정상체중, 25점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인 사람의 수가 14명으로 전체 실험참여자의 3.6%에 불과해 이들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실험 설계

2(전후: 대중매체 노출 전/후)×3(대중매체 비디오 조건: 날씬/뚱뚱/통제)×3(연령: 초/고/대)×2(신체질량지수: 정상체중/과소체중)의 사원 혼합 요인 설계로 이루어졌으며, 전후는 피험자 내 변수이고, 대중매체, 연령, 신체질량지수는 피험자간 변수이다.

3. 연구 도구

(1) 대중 매체 비디오 자극

각 실험 조건에 사용하게 될 대중매체 자극들은 공중파 TV나 케이블 방송 등에서 방영된 것들로 연구자가 녹화, 편집하였으며, 각 조건에 사용되는 비디오의 상영시간은 약 10여분 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비디오를 제작한 후 심리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 4명에게 연구 목적을 알려 주지 않은 채 비디오에 출연한 여성들의 외모와 체형에 대해 평가하게 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디오를 다시 편집, 사용하였다.

1) 이상적인 신체적 미를 강조한 자극(이하 날씬 조건)

이 대중매체 조건에 사용된 프로그램들은 주로 마른 몸매를 강조하였거나 마른 몸매가 두드러지게 잘 드러난 출연자들이 등장하는 방송물들을 연구자가 녹화, 편집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뮤직비디오, 드라마, 패션쇼 등에서 선택하였으며, 두 번째 실험자극인 뚱뚱한 여성이 등장하는 대중매체 자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한국 여성과 외국 여성이 함께 들어가도록 하였다.

2) 뚱뚱하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한 자극(이하 뚱뚱 조건)

날씬하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등장하는 대중매체 자극과 매력도에서 비슷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뚱뚱하면 일단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뚱뚱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극을 구성하였다. 이에 포함된 것들로는 뚱뚱하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로 알려진 K

그룹의 S씨, O씨, 재즈 보컬리스트 K씨, 그리고 청소년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한 좌희정 학생의 ‘내 살이 아름다워’ 작품, 뉴스에서 방송된 러시아 최초 여성 국방장관과 태국에서 열린 점보 퀸 대회 장면, 그리고 ‘와 e-멋진세상’에서 방영된 똥보 미인대회 장면, bigmama의 뮤직비디오 등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였다.

3) 중성적인 자극(이하 통제 조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방영된 ‘원숭이의 세계’라는 제목의 동물 다큐멘터리로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원숭이의 생태를 그린 내용으로 원숭이와 새, 꽃과 같은 동식물만이 등장한다.

(2) 신체상 측정도구

1) 지각적 신체상 측정도구

이미숙(2000)이 우리나라의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에 근거해 개발한 지각적인 신체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실제 신체상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상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성별, 연령에 따라 달리 제작되었으며, 초등학생용과 고등학생/성인용의 두 가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의 체형을 나타내는 실루엣으로 되어있으며 얼굴 생김새나 의복과 같은 정보는 주어지지 않고, 신체상의 길이 항목은 고정시킨 채 너비 항목만을 일정한 간격으로 넓혀감으로써 총 7단계로 되어있다. 이때 가장 마른 모습이 1, 가장 뚱뚱한 모습이 7로, 평균적인 신체상은 4에 해당하도록 고안되었다.

2) 상태 신체 존중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의 노출 영향에 대한 신체상의 변화를 환경에 대한 적응지표로 간주하는 동태적 관점을 취하여(박은아, 2000; Irving, 1990) 신체상에 대한 태도를 특성(trait)이라기보다 상태(state)로 보고 해저튼과 폴리비(Heatherton & Polivy, 1991)가 개발한 상태 자기존중감(state self-esteem) 척도 중 외모 부분의 존중감을 묻는 하위 척도 총 6문항 가운데 상관이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박은아(2000)가 번

역, 사용하였던 문항을 사용했다. 5개 문항은 1)나는 현재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내 신체 모습에 만족감을 느낀다, 2) 나는 현재의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3) 지금 나는 내 외모가 만족스럽다, 4) 나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5) 지금 나는 내 모습이 괜찮게 느껴진다 이다. 이중 2번 문항과 4번 문항은 부정형 문장이기 때문에 채점 시 역채점을 하였다. 박은아의 연구에서는 다섯 문항의 내적합치도가 (Cronbach α) .77로 비교적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사전, 사후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2와 .84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에 대한 태도를 특정 시점에서 느끼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하는 개념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자극 노출 후 “현재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질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는 초등학생용, 고등학생/대학생용이 각각 사전, 사후로 나누어져 있으며, 피험자들이 연구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 없는 패션이나 방송청취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4. 실험 절차 및 자료 분석

실험은 연구자가 각 학급에 입실하여 직접 실시하였다.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면 이를 모두 수거하고 각 실험조건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시청한 다음, 사후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초등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소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남녀 학생 모두가 동일한 실험 과정에 참여하였고, 설문지도 여학생용에서 수정된 남학생용을 따로 준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남학생 자료의 경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0.0을 사용하였으며, 시청 사전/사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원 혼합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의 신체상 지각의 차이*에 관한 분석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의 각 집단에 따른 현재 체형과 이상체형 사이의 지각의 차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음의 <표 2>과 같다.

<표 2> 신체상 지각의 차이에 대한 사전, 사후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비만정도		대중매체 조건						
		날씬		뚱뚱		통제		
		과소	정상	과소	정상	과소	정상	
초	전	.48(.99)	1.58(.79)	.14(1.01)	1.69(.85)	.14(.99)	1.00(.60)	
	후	.52(.90)	1.75(.62)	.00(1.11)	1.46(.97)	.18(.96)	1.08(.67)	
연령	고	전	-.15(.99)	2.11(.99)	.48(.99)	2.00(.84)	.85(.99)	1.92(.51)
	후	.07(.86)	2.36(.83)	.26(1.10)	1.95(.97)	.92(1.04)	1.92(.51)	
대	전	.38(.92)	1.52(.89)	-.33(1.07)	1.65(.85)	.56(.88)	1.95(.94)	
	후	.43(.93)	1.72(.98)	-.58(1.16)	1.63(1.00)	.56(1.01)	1.90(.85)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전 신체상 지각의 차이에 대한 집단간 평균을 비교해보면, 개인의 비만 정도에 따른 과소 체중 집단과 정상 체중 집단간에 사전 신체상 점수에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365)}=208.151, p<.0001$). 즉, 정상 체중 집단은 과소 체중 집단에 비해 현재 체형과 이상 체형 사이의 차이를 더욱 크게 인식하였다. 또한 연령 집단간에도 사전 신체상 지각 차이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_{(2,364)}=10.206, p<.0001$), 고등학교와 대학교 집단이 초등학교 집단에 비해 현재 체형과 이상체형 간의 차이를 더욱 크게 지각하였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 대중

* 본 연구에서 신체상 지각의 차이는 현재 자신의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실루엣 그림의 번호와 되고 싶어하는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체형의 실루엣 그림 번호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신체상 지각의 차이=현재 체형-이상체형.

매체 조건에 따른 사전 신체상 지각의 차이에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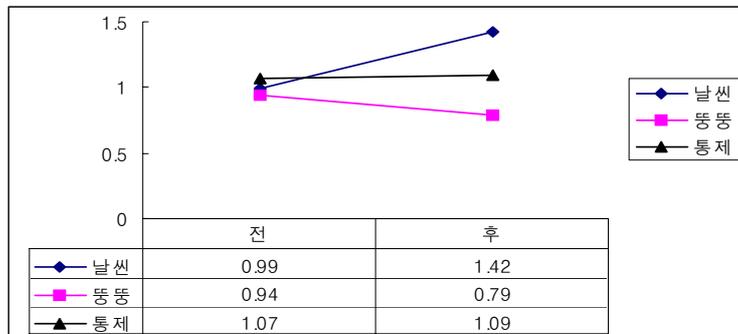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에 따른 각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원 혼합 요인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전,후의 독립변인에 따른 신체상 지각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표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험자내				
전후	.01	1	.01	.12
전후×대중매체조건	2.72	2	1.36	10.64***
전후×연령집단	.12	2	.06	.45
전후×BMI	.12	1	.12	.95
전후×대중매체조건×연령집단	.17	4	.04	.33
전후×대중매체조건×BMI	.13	2	.06	.49
전후×연령집단×BMI	.05	2	2.66	.21
전후×대중매체조건×연령집단×BMI	.25	4	.06	.48
오차(전후)	44.55	349	.13	
피험자간				
대중매체조건	6.20	2	3.10	1.93
연령집단	15.55	2	7.77	4.85**
BMI	320.22	1	320.22	199.72***
대중매체조건×연령집단	18.71	4	4.68	2.92*
대중매체조건×BMI	9.88	2	4.94	3.08*
연령집단×BMI	5.66	2	2.83	1.77
대중매체조건×연령집단×BMI	14.87	4	3.72	2.32
오차	559.58	349	1.60	

* p<.05, **p<.001, ***p<.0001

표 3을 보면 대중매체 비디오 조건과 시청 사전, 사후의 상호작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_{(2,349)}=10.64, p<.0001$). 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대중매체 자극 조건에 따른 사전, 사후 신체상 지각 차이의 변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조건의 대중매체를 시청했느냐에 따라 사후 평균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다. 즉, 날씬조건의 대중매체를 시청한 집단은 시청 전에 비해 현재 체형과 이상 체형의 차이가 더욱 커졌으며, 뚱뚱조건의 대중매체를 시청한 집단은 시청 전보다 현재 체형과 이상체형의 차이가 감소했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 시청 사전, 사후의 신체상 지각의 차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시청 후의 사후 점수에 대해서 세 집단간 Bonferroni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날씬 조건과 뚱뚱 조건의 평균과 뚱뚱 조건과 통제 조건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p < .05$).

2.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의 상태 신체 존중감에 관한 분석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의 각 집단에 따른 상태 신체 존중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상태 신체 존중감에 대한 사전, 사후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비만정도		대중매체 조건					
		날씬		똥똥		통제	
		과소	정상	과소	정상	과소	정상
초	전	3.89(1.01)	3.25(.86)	3.78(.85)	3.37(.96)	3.63(.86)	3.52(.64)
	후	3.87(1.00)	3.25(.83)	3.79(.84)	3.55(.94)	3.58(.95)	3.72(.84)
연령 고	전	3.40(.40)	2.62(.80)	3.37(.86)	2.65(.74)	2.32(.59)	2.47(.65)
	후	3.17(.65)	2.63(.81)	3.58(.93)	2.90(.81)	2.46(.76)	2.58(.88)
대	전	3.85(.84)	3.60(.77)	4.10(.94)	3.57(.74)	3.64(.64)	3.41(.67)
	후	3.88(.88)	3.57(.77)	4.20(.87)	3.70(.70)	3.64(.65)	3.5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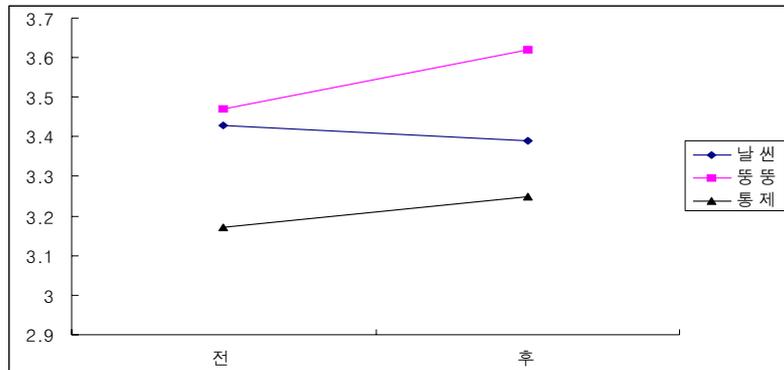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전 상태 신체 존중감에 대한 집단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 개인의 비만 정도에 따른 과소 체중 집단과 정상 체중 집단간에 사전 신체상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365)}=13.47, p<.0001$). 즉, 정상 체중 집단은 과소 체중 집단에 비해 사전 상태 신체 존중감에서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연령 집단간에도 사전 신체상 지각 차이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2,364)}=37.81, p<.0001$). Bonferroni 사후 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에서 그리고 대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에서 모두 고등학생 집단이 더 낮은 상태 신체 존중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하지만, 각 대중매체 비디오 조건에 따른 사전 상태 신체 존중감에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에 따른 각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원 혼합요인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전, 후의 독립변인에 따른 상태 신체 존중감에 대한 변량분석표

분산원	지승합	자유도	평균지승	F
피험자내				
전후	.63	1	.63	8.10*
전후×대중매체조건	1.08	2	.54	6.97*
전후×연령집단	.03	2	.01	.19
전후×BMI	.27	1	.27	3.48
전후×대중매체조건×연령집단	.39	4	.10	1.26
전후×대중매체조건×BMI	.01	2	.00	.07
전후×연령집단×BMI	.10	2	.05	.62
전후×대중매체조건×연령집단×BMI	.30	4	.08	.98
오차(전후)	26.913	349	.08	
피험자간				
대중매체조건	10.75	2	5.38	4.39*
연령집단	90.38	2	45.19	36.90***
BMI	18.36	1	18.36	14.99***
대중매체조건×연령집단	7.44	4	1.86	1.52
대중매체조건×BMI	7.56	2	3.78	3.09*
연령집단×BMI	.26	2	.13	.11
대중매체조건×연령집단×BMI	3.24	4	.81	.66
오차	427.46	349	1.23	

* p<.05, ***p<.0001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와 대중매체 비디오 자극 조건과 사전, 사후의 상호작용만이 유의미하였다($F_{(1,349)}=8.10$, $p<.05$, $F_{(2,349)}=6.97$, $p<.05$). 대중매체 비디오 자극 조건 집단에 따른 상태 신체 존중감의 점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세 자극 조건 집단의 사전, 사후의 평균의 변화를 다음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대중매체 비디오 자극 조건에 따른 전, 후 상태 신체 존중감의 변화

그림 2를 보면, 시청한 대중매체 비디오 조건에 따라 사후 평균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날씬조건의 대중매체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은 시청 전에 비해 상태 신체 존중감이 더욱 감소하였으나, 똥똥조건의 대중매체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은 시청 전보다 상태 신체존중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후의 사후 점수에 대해서 세 집단간 Bonferroni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날씬 조건과 똥똥 조건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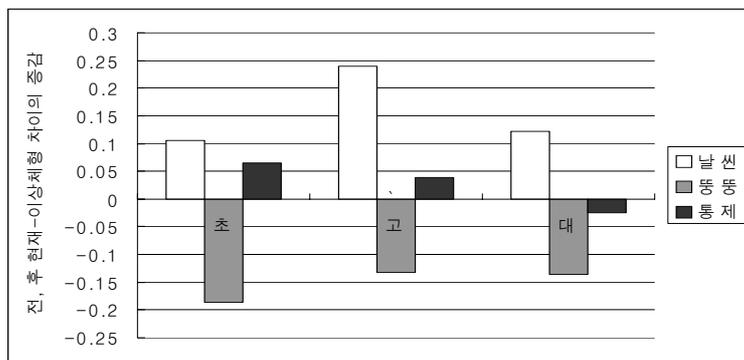
3. 연령에 따른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의 신체상 변화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전과 시청 후의 신체상 지각의 차이와 상태 신체 만족감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에 조건에 따른 연령 간 집단차, 즉 사전, 사후×조건×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표 3>과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각 대중매체 비디오 조건에서의 시청 사전, 사후 연령별 신체상 지각의 차이와 상태 신체 만족감의 변화 정도를 평균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6>, <표 7>과 [그림 3], [그림 4]와 같다.

* 신체상 지각의 차이 변화는 ((사전 현재체형-이상체형의 평균)-(사후 현재체형-이상체형의 평균))으로 정의하고, 상태 신체 존중감 변화는 (사전 존중감 평균-사후 존중감 평균)으로 정의한다.

<표 6> 비디오 자극 조건에 따른 연령 집단간 전, 후 신체상 지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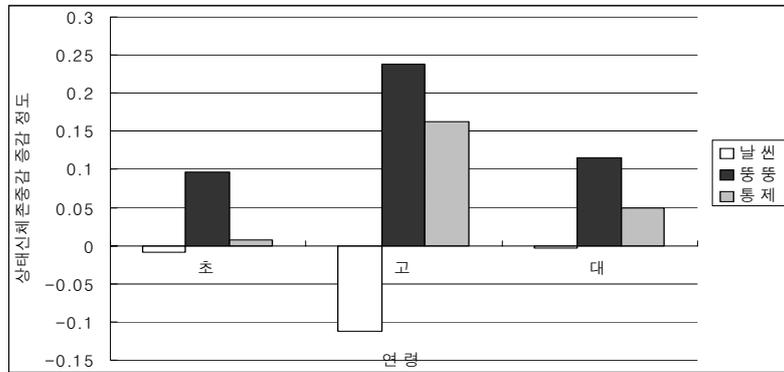
		초		고		대		
		평균(표준편차), 증감						
신체상 지각의 차이	날씬	전	1.03(.16)	.11	.98(.15)	.24	.95(.12)	.12
		후	1.14(.17)		1.22(.16)		1.07(.13)	
	뚱뚱	전	.92(.16)	-.19	1.24(.14)	-.13	.66(.15)	-.14
		후	.73(.17)		1.11(.14)		.52(.15)	
	통제	전	.57(.16)	.06	1.38(.18)	.04	1.25(.18)	-.02
		후	.63(.17)		1.42(.19)		1.23(.19)	



[그림 3] 연령 집단간 대중매체 시청 전, 후의 현재-이상체형 차이의 증감

<표 7> 비디오 자극 조건에 따른 연령 집단간 전, 후 상대신체존중감의 변화

		초		고		대		
		평균(표준편차), 증감						
상태 신체 존중감	날씬	전	3.57(.14)	-.01	3.01(.13)	-.11	3.72(.10)	-.00
		후	3.56(.15)		2.90(.14)		3.72(.11)	
	뚱뚱	전	3.58(.14)	.09	3.01(.12)	.23	3.83(.13)	.12
		후	3.67(.15)		3.24(.12)		3.95(.13)	
	통제	전	3.57(.14)	.08	2.40(.16)	.12	3.53(.16)	.05
		후	3.65(.15)		2.52(.17)		3.58(.17)	



[그림 4] 대중매체 시청 전, 후 연령 집단간 상태 신체 존중감 점수의 증감

평균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날씬 조건의 대중매체 비디오를 시청한 경우 신체상 지각과 신체 존중감 모두에서 고등학생 집단이 초등학생 집단이나 대학생 집단보다 다소 큰 변화 정도를 나타냈다. 반면, 뚱뚱 조건의 대중매체 비디오를 시청한 경우, 초등학생 집단에서 신체상 지각의 차이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상태 신체존중감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만족감의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TV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각기 다른 신체 메시지의 노출이 신체상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중파, 위성 방송, 극영화에서 서로 다른 신체적 매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녹화, 편집하여 날씬/뚱뚱/통제 세 조건의 대중매체 자극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에 신체상 지각의 차이와 상태 신체 존중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사원 혼합요인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후와 조건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실험 조건에 따른 사전, 사후의 평균과 그 증감을 분석하고, 집단간 차이에 대해서는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의 신체상 변

화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간 사전, 사후 평균의 증감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V 매체 노출 후의 신체상 지각 차이와 신체 존중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청 전, 후와 조건의 상호작용만이 유의미하였다. 즉, 날씬하고 사회적으로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몸매를 가진 여성들이 주로 등장하는 대중매체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은 자신의 현재 체형과 이상 체형간의 차이는 증가하고 신체 존중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많은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Evans et al., 1995 ; Hargreaves & Tiggemann, 2002; Stice et al., 1994; Posavac et al., 1998 등), 대중매체가 신체불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뚱뚱하고 신체적 매력은 덜 하지만 자신의 외모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외모 이외의 다른 장점들을 가진 여성들이 등장하는 대중매체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은, 현재 체형과 이상 체형간의 차이는 줄어들었으나 신체 존중감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대학생 피험자만을 사용했고 단지 비만인 여성의 사진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지만, 어빙(Irving, 1990)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어빙의 연구에서는 비만인 여성 모델의 슬라이드 사진을 본 집단이 보통 체중의 모델이나 날씬한 체중의 모델 사진을 본 집단보다 몸무게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영상과 음향을 동시에 제공하였고, 뚱뚱 조건의 경우 등장한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보다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담긴 대중매체 자극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험 대상자들이 더욱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Harrison, 1997).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와 근거들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대중매체가 신체상의 지각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금까지 대중매체에서 제공되는 신체상에 관한 정보들이 주로 날씬하고 마른 여성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비추어졌다면, 이제는 대중매체가 신체적 조건 이외의 다양한 긍정적 특성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조명과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외국의 연구자들은 섭식장애를 예방하거나 신체상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프

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연구들도 있다(Killen et al., 1993; McVey & Davis, 2002).

둘째,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사전, 사후의 신체상에 변화를 연령 집단간에 비교한 결과, 사전, 사후에 각 대중매체 비디오 조건에서 연령 간 변화 양상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그러나 세 연령 집단에서 사전, 사후 점수의 증감을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고등학생 집단이 초등학생이나 대학생 집단에 비해 대중매체 비디오 시청 후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이 시기가 특히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연예인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한 시기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검자 표집의 어려움과 시간적 제약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학생 집단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는데, 중학생 집단이 포함된다면 추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발달적 변화의 경로에 대해서도 정교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으로는 첫째, 직접적인 대중매체 자극의 노출을 통한 신체상의 변화를 연구하였다는 점과 TV와 같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외모와 체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을 동일시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한 고등학생 집단을 첨가함으로써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는 변화의 경로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신체불만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중매체의 영향에 민감한 시기를 대체적으로 14세에서 16세 사이로 추정하고 있고(Hargreaves & Tiggerman, 2003; Rosenblum & Lewis, 1999), 점차적으로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있으므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중간에 있는 중학생집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긍정적인 대중매체 자극을 사용하여 이러한 자극에의 노출이 신체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등장하는 몇몇 여성 연예인들의 경우,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살을 빼 여성들이어서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실험 참여자들이 다른 식으로 메시지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실험에 사용한 대중매체 자극 역시 실험자가 전달하고자 한 의도대로 제작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 자극을 보다 타당하게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물론 이와 비슷한 선행연구들이 대중매체의 노출로 인한 효과에

대해 추후 연구(follow up)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TV 자극의 노출 직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탐지해내기 위한 연구도구를 사용하고 노출 직후의 변화만을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노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지속되는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수영, 원장원(1996). 신체 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의학회지*, 17권 6호.
- 김재숙, 이미숙(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 학회*, 25권 5호, 957-968.
- 김태은(1999). 어린이·청소년의 시청형태 분석, *광고정보*, 5월호, 66-70.
- 박은아(2000). 광고모델과 소비자의 신체이미지 차이에 따른 광고효과,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2002).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건강수준 실태조사.
- 신미영(1997).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소연(1994). 폭식 행동 집단의 신체 불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가영(1997). 신세대 의복 행동에 나타난 TV의 영향에 관한 연구-중·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선진, 김초강(1997). 일부 여대생의 비만 수준 및 체중조절행태가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미정(2000). 신체 이미지 관련 TV 메시지 처리방식이 여대생의 신체만족 과 다이어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4권 3호, 291-317.
- 한미정(2002). 신체이미지 관련 TV 노출과 지각이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의 신체만족감과 다이어트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방송연구*, 여름호, 313-338.
- Birtchnell, S. A., Dolan, B. M., & Lacey, J. H.(1987). Body image distortion in non-eating disorders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6(3), 385-391.
- Duke-Ducan, P., Ritter, P., Dornbusch, S. M., Gross, R. T., & Carlsmith, J. M.(1985). The effects of pubertal timing on body image, school behavior, and devi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227-235.

- Dunkley, T. L., Wertheim, E. & Paxson, S. J.(2001). Examination of a model of multiple sociocultural influences on adolescent girls' body dissatisfaction and dietary restraint, *Adolescence*, 36(142), 265-279.
- Evans, N., Gilpin, E. Farkas, A. J., Shenassa, E. & Pierce, J. P.(1995).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peers' norm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 1064-1069.
-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S. K.(2002).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1-16.
- Hamilton, K. & Waller, G.(1993). Media Influences on Body Size Estimation in Anorexia and Bulim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837-840.
- Hargreaves, D., & Tiggemann, M.(2002). The effect of television commercials on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The role of appearance-schema activ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3), 287-308.
- Hargreaves, D. & Tiggemann, M.(2003). The Effect of "Thin Ideal" television Commercials on Body Dissatisfaction and Schema Activa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3), 367-373.
- Harrison, K. & Cantor, J.(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nsumption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47, 40-67.
- Harrison, K.(1997). Does interpersonal attraction to thin media personalities promote eating disorde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97(41), 478-501.
- Heatherton, T. F. & Polivy, J.(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85-910.
- Irving, L. M.(1990). Mirror images: Effects of the standard of beauty on the self-and body-esteem of women exhibiting varying levels of bulimic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230-242.
- Keeton, W. P., Cash, T. F., & Brown, T. A.(1990). Body image or body images? :

- Comparativ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1&2), 213-230.
- Killen, J. D., Taylor, C. B., Hammer, L. D., Litt, I., Wilson, D. M., Rich, T., et al.(1993). An attempt to modify unhealthful eating attitudes and weight regulation practices of young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3, 369-384.
- Killen, J. D., Taylor, C. B., Hayward, C., Wilson, D. M., Haydel, K. F., Hammer, L. D., Simmons, B., Robinson, T. N., Litt, I., Varady, A. & Kraemer, H.(1994). Pursuit of thinness and onset of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 girls: a three-year prospectiv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6, 227-238.
- Koenig, L. J. & Wasserman, E. L.(1995). Body image and dieting failure in college men and women: examining links between depression and eating problems. *Sex Roles*, 31, 407-431.
- Leon, G. R., Fulkerson, J. A., Perry, C. L. & Cudeck, R.(1993). Personality and behavioral vulnerabilities associated with risk state for eating disorder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438-444.
- Levine, M. P., & Smolak, L.(1996). Media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disordered eating. In Smolak, L., Levine, M. P., and Sriegel-Moore, R.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Eating Disorders: Implications for Research, Prevention and Treatment*. Earlbaum, Mahwah, NJ, 233-257.
- Levine, M. P., & Smolak, L.(1998). The mass media and disordered eating: Implication for primary prevention. In Vandereycken, W. & Noordenbos, G. (eds.), *The Prevention of Eating Disorders. Studies in Eating Disorders: An International Series*.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23-56.
- Mcvey, G. L., & Davis, R.(2002). A program to promote healthy body image: A 1-year follow-up evalua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2, 96-108.
- Muir, S. L., Wertheim, E. H., & Paxton, S. J.(1999). Adolescent girls' first diets: Triggers and the role of multiple dimensions of self-concept. *Eating*

- Disorders: The Journal of Treatment and Prevention*, 7, 259-270.
- Posavac, H. D., Posavac, S. S. & Posavac, E. J.(1998). Exposure to media images of female attractiveness and concern with body weight among young women. *Sex roles*, 38, 187-201.
- Power, P. S., Schulman, R. G., Gleghorn, A. A. & Prange, M. E.(1987). Perception and cognitive abnormalities in bulim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1456-1460.
- Resenbaum, M.(1979). The changing body image of the adolescent girl, In M. Sugar(Ed.), *Female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234-252.
- Rosenblum, G. D. & Lewis, M.(1999). The relations among body imag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ma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0, 50-64.
- Stice, E., & Agras, W. S.(1998).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352-359.
- Stice, E., Schupack, N. E., Shaw, E. H., & Stein, R. I.(1994).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836-840.
- Stice, E. & Shaw, H. E.(1994). Adverse effects of the media portrayed thin-ideal on woman and linkages to bulimic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288-308.
- Strie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J.(1986). Toward an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for bulimia, *American psychologist* 41, 246-263.
- Thompson, J. K., & Heinberg, L. J.(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 339-353.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J. K., & Smolak, L. (Eds.).(2001).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in Youth: Assess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urner, S., Hamilton, H., Jacobs, M., Angood, L., & Dwyer, D.(1997). The Influence of fashion magazines on the body image satisfaction of college women: an exploratory analysis. *Adolescence*, 32, 603-614.
- Vander Wal, J. S., & Thelen, M. H.(2001). Predictors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in elementary-age school girls. *Eating Behaviors*, 1, 1-18.

ABSTRACT

The Effect of Mass Media on Body Perception and State Esteem of Body Image

Jang, Hee-Soon* · Kim, Tae-Ryeon**

This study defined body image disturbance as perception and attitude of a person's body image.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prove of the impact in TV message on the viewers' body image disturbance. The subjects are 386 female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high school-aged adolescents and university women. They watched three types of video from TV, satellites broadcasting and movie named thin, fat, control. Perception distortion was assessed body silhouettes and attitudes body image was assessed by body-esteem sub scale of state self-esteem scale made by Heatherton(1991) and translated by Park(2000). This study of result were as follows. There are different results between three condition groups. First, the students exposed to thin video perceived more discrepancy and showed lower body-esteem. Second, the students exposed to fat video were lowered discrepancy and increased body-esteem. In addit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Key Words : body image, body disturbance, mass media

투고일 : 10월 27일, 심사일 : 12월 4일, 심사완료일 : 12월 18일

* Hanyang University Hospital

** Ewha Womans University